

갈레누스의 研究, 臨床, 藥理學등의 面에서의 活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研究中에는, 外科의 診療에서 그가 보여준 才能이나 날카로운 觀察에 터치되지 않은 것이 적지않다. 「外科手術의 모든 것이 「베는 것」과 「가까이 대는 것」의 두가지 카테고리인 어느 것에 속한다. 가까이 대는 것으로는 骨折의 接骨과 繃帶, 脫臼의 接骨, 脫出한 腸管, 子宮, 直腸의 整復, 服部의 縫合, 코, 입술, 귀등의 組織缺損部의 修復과 같은 것이 속한다. 베는 것은 單純한 切開, 割禮, 皮膚를 부풀게 하는 것, 剝皮, 靜脈의 切開, 四肢의 切斷, 燒灼, 搔爬, 補整, 톱에 의한 切斷이 屬한다.

1550년에 出版된 베네치아版인 갈레누스 著作에 그려진 治療의 光景, 갈레누스가 記述한 머리, 눈, 발, 膀胱, 性器의 外科的 治療法이 16世紀에도 아직 行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베르타레리·콜렉션(밀라노).



# 세창치과기공소

752-5970, 778-8687

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18 (금정빌딩 302)

대표 권혁문